

II. 멕시코 향정신성 물질의 역사적배경

멕시코의 식민지 (Colonial) 시대 이전부터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기록은 나와있는데, 빼요때 (Peyote, Hikuri)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버섯등등의 흡입에 대한 흔적이 나와있으며, 시대를 지나며, 19 세기 및 20 세기 전반까지, 주로 의료용으로 많이 처방되었던 향정신성 물질류의 소비는 일반 약국에서도 별도의 의사 처방전없이 구입할수 있을 정도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며, 해당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보다는 알콜 음료 소비가 사회 문제로서 더 심각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향정신성 물질은 1920 년대와 1930 년대 이웃나라 미국이 마리화나와 같은 물질들이 사회문제로 대두(擡頭)되며, 법적 금지를 하게되며, 이에 동참하게 됨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가하게끔 되었다.

예를 들면, 1925 년 1 월 대통령 플르타르코 엘리아스 카에쓰 (Plutarco Elias Calles)에 의한 대통령령 (Decreto)에 의하여, 히로뽕, 코카인에 대한 재배금지를 하였고, 일년후에는 양귀비 사촌쯤되는 아마폴라 (Amapola)라는 재배를 멕시코에서 금지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나로아 (Sinaloa) 주의 미국 수출 겨냥 주요 재배 품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많은 전임 대통령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부분이 향정신성 물질을 의약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금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0 년 대통령에 취임한 비센테 폭스 (Vicente Fox)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2 년 11 월 발표한 2001-2006 년 향정신성 의약품 국가적